

美 일리노이주립대 1년 손정희(광주출신)씨의 美 대학 합격기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학 1학년인 손정희(19·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이번 여름방학이 특별하다. 힘들게 미국 대학에 입학한 뒤 부모가 있는 광주를 첫 방문한 것 때문 만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올 여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 집중캠프'에 보조강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가르쳐본 적은 없지만, 토종 한국인으로서 미국 영어를 몸으로 배우며 느꼈던 한계 등을 어린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서다.

손씨는 대성이고 1학년이던 지난 2005년 여름방학 때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스트로윈(East Rowan) 공립고에 입학, 아예 미국에서 고교를 마치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일리노이주립대학에 입학해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손정희씨가 지난 28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백일초등학교에서 광주시교육청 '영어 집중캠프'에 보조강사로 참여해 초등학생의 영어 공부를 돕고 있다.

낮은 영어 점수 공연·봉사로 보완

중3 때 교환 학생 시험 결심... 두 번 떨어지후 합격 영어는 수학·과학과 다르게 생활 언어로 접근 아이비리그 명문 펜실베이니아대 편입위해 다시 도전

를 다녀온 뒤 영어가 늘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영어 시험에서 한 두개 틀리는 정도였다고 한다.

중3 때 미국 학교와 교환학생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본격적인 미국생활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교환학생 선발 시험에 두 번 낙방한 뒤 고교 1학년 1학기 때 세 번째 시험을 합격하면서 손씨의 꿈도 현실화됐다. 손씨는 "그냥 영어 조금 잘 하는 애였을 뿐이다"며 "다만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영화를 자주 보는 것으로 듣기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대입에 성공 한국과는 180도 다른 미국의 고교 생활 하면서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영어 실력은 언제나 손씨의 발목을 잡았다. 수학과 과학 등 다른 과목은 없어서도 톱 클래스였으나 영어는 그럴 수가 없었다. 소극적인 성격이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던 손씨는 농구와 수영 등 동아리에 들어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친구들이 많아지니 자연히 영어도 늘었다. 친구들과 자신 공연, 봉사활동을 하며 고교에서도 공부 외의 다양한 사회경험을 할 수 있었다. 홈스테이를 하며 미국인 노부부와 생활했던 것도 영어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손씨는 "고교

영어 성적은 좀 미흡했지만 다른 과목의 성적이 괜찮았던 것과 교과 외 각종 활동 덕에 대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일리노이주립대학은 소위 '잘 나가' 대학은 아니다"고 겸손해 했다.

다른 도전 손씨는 올 여름방학 광에서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초등학생 '영어 집중캠프'에 보조강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씨의 근무처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백일초. 18명의 학생들과 2주간 생활하게 된다. 손씨는 "영어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과목과 다르게 하나의 언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8월17일 출국, 2학년 새 학기를 맞는다. 손씨는 대학생활 1년을 마치면서 새롭게 새운 계획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지 금부터 기대와 두려움으로 설린다. 아이비리그 명문 중 하나인 유엔(펜실베이니아)으로 편입을 계획 중이다. 손씨는 "고교 때는 한국 친구들이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는 자를 부러워 했는데 대학생 된 뒤에는 제가 친구들을 부러워하게 됐다"며 "일정일단이 있지만 미국 대학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미국행 결심 손씨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로 결심한 것은 상무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동안 떠났던 뉴질랜드 단기 방학연수 때문이다. 물론 당시는 외국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 수준이었다. 연수

다양한 학문 분야 관심 가져야 유리

서울대 신설 '자유전공학부' 지원하려면

수학 올림피아드 수상자도 인문 소양 갖춰야

서울대가 30일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개설하기로 한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정원과 선발 방식 등 윤곽이 드러났다.

수시와 정시 모집을 합쳐 모두 157명을 선발하게 될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인문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 특정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자유전공학부는 최근 들어 학문 간 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데다 1975년에 인문대와 사회대, 자연대로 해체된 옛 서울대 문리대의 교육·연구 정신이 계승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아왔다.

자유전공학부는 기존에 실시되던 특기자전형의 모집단위 중 하나로 신설되지만 특기자전형이 학생의

전공 적성을 최대한 살리는 선발 방식인데 반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두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입학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연계열에서도 사회 과학까지 보고 인문계열에서도 수학, 과학 과목을 보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일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나가 수상한 학생의 경우 기존 특기자 전형으로 학 과목을 비중있게 평가하는 물리천문학부 등에 지원하면 수성 경력이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만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면 인문학적 소양 등도 평가받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중시하기 때문에 과학교 학생들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면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전형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입학관리본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입학에서는 자유전공학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의치약전문대학원(의치약)이나 의치약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거쳐가는 일종의 '프리 로스쿨' 등으로 전략하지 않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가 자유전공학부를 기초교육원 산하로 두고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하면서 융합적인 전공 교육을 추구해 국제적인 리더를 양성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로스쿨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대거 몰려 학점을 따기 쉬운 강의만 골라 들으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영정 본부장은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아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한국을 넘어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고입·고졸 검정고시 내일 실시

광주공고·화정중·고령정보산업학교 등 4곳서

올해 두 번째 검정고시가 실시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8월1일 '2008년도 제2회 고등학교 입학 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광주 화정중, 광주공고, 광

주 고령정보산업학교, 광주교도소 등 4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지원자는 총 1천926명으로 지난 4월 제1회 1천916

명보다 10명 늘었다. 시교육청은 응시자 편의를 위해 시험이 끝난 뒤 문제지와 정답을 홈페이지(www.ge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합격자 명단은 8월27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대 e-러닝 교양과목 '5·18과 민주인권'

가상캠퍼스 베스트 콘텐츠 선정

전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원장 이지현)이 개발한 '5·18 교양과목'이 최고의 e-러닝 콘텐츠에 선정됐다.

30일 전남대에 따르면 한국 가상캠퍼스 평가위원회는 전남대를 비롯한 한양대, 경북대, 경상대, 광주통신대, 광운대, 한림대 등 전국 7개 대학에서 실시 중인 한국 가상캠퍼스 2008학년도 1학기 55개 과목 중 '5·18과 민주인권'을 베스트 콘텐츠로 선정했다.

정치외교학과, 박구용(인문대 철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제작한 '5·18과 민주인권'은 5·18의 학술적 검증을 통해 정규교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상캠퍼스 평가는 교수설계(요구 분석, 설계전략, 매체전략, 인터렉션, 인터페이스) 분야와 학습내용(적합성, 난이도, 학습량, 최신성) 분야가 종합적인 검토 대상이었다.

비디오 자료, 강의 판서 등 20~30분 동영상 강좌로 총 43강짜리 제작됐으며, 5·18 관련 역사적 자료를 재정리해 디지털 학습 자료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한국 가상캠퍼스 심사위원회는 "전남대학교의 특성을 잘 살렸고 질이 높아 e-러닝 콘텐츠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e-러닝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상캠퍼스 평가 매개체가 대학이 내놓은 50~60개의 e-러닝 강좌를 각 대학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하고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수완지구 건물임대. 모odel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1층 330㎡ 분할가능, 2층 340㎡ 170㎡, 3층 340㎡ 분할가능,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프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첨단일계공인중개사 급매매. 468 2145 월금17 스크립17개 보7000만 월495만 대용3천만. 410 평 110평 원목15개 보2000만 월480만 대용3천만.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아파트/빌라,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주차/공장. Table with columns: 소재지, 대/건, 가격, 최저가.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불-(주)옥션코리아. 성공적 파트너 / 경매제테크. Table with columns: 소재지, 지역, 면적/대/건, 가격, 최저가.

국민공인중개사. Han 011-635-7939, 010-2810-6103. Table with columns: 건물, *6억 사할 금액, *8억 사할 금액.